

사람들은 흔히 1980년대를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어쩌면 1980년 초에 대학을 다닌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1980년대는 미문화원 방화 사건과 함께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그때만 해도 교정에서 성조기가 태워지는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민족주의의 시대기도 했다. 학내에는 민족문학, 민족미술, 민족음악 등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었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건축이 인문학의 영역 밖에 있지만, 당시 그림시와 로자 룩셈부르크, 리영희는 기본이고 인문학도들이 조동일 교수의 책을 들고 막걸리 집을 드나들 때 나에게서는 한 권의 책이 더 들려 있었다. 신영훈 선생의 《한국의 살림집》(열화당)이 그것이었다.

### 전통건축에 대한 두가지 의문

당시 공학계열로 입학했다가 다시 건축과에 적을 둔 나에게서는 인문사회대생들이 탈춤에 열중했던 것처럼 한국의 건축이란 게 뭔지 알고 싶었다. 뭐, 주남철 교수의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웬지 공학 디자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한국의 살림집》은 그동안의 막연함을 일거에 해소해 버릴 만한 노작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저자를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강남행을 한다. 일산에 살며 홍대 근처의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는 내게 한강을 넘는 것은 해엄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는 각오를 필요로 한다. 신영훈 선생은 2개월 전 강남역 부근에 '한옥 문화원'이라는, 한옥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는 사무실을 열었다. 사무실은 다섯평 남짓했고, 강의실은 10평에서 15평정도인 자그마한 공간이었다. 선생의 연구라는 것이 주로 집 짓는 현장이나 옛집이 있는 곳이니까 따로 연구실이라는 것이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책상 하나에 조그만 의자 두 개, 한자 반 정도의 탁자가 비좁게 들어갈 정도면, 참 작은 공간이었다. 명성에 걸맞지 않은 단출한 살림이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한옥

의 방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알맞다는 생각이 든다. 좁은 방에서 사진기가 자가 카메라 위치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한다.

“야, 시인이 건축을 한다니, 멋진 집을 짓겠네요.”

선생은 좋은 인상대로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건넸다. 작은 키에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체형이다. 마치 가난한 초가집

에 이리저리 달려 있는 등근 호박처럼 넉넉하다. 한번쯤 만나고 싶었고,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 있는 전통건축에 대한 의문을 그에게 묻고 싶었던 나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 하나는 점점 더 거대화·대량생산화돼가는 현대건축 추세에 전통 목구조 방식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불리함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 목구조도 일반인들이 좀더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래의 도구를 개량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실 신영훈 선생도 “서양의 목구조는 목구조도 아니다”고 말했듯이 그만큼 우리 목구조는 여간한 숙련공이 아니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 한옥에 대한 깊은 애정 느낄 수 있어

신영훈 선생은 그 두 가지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답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없어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것이 첫번째 답이었고, 도구를 개량할 것이 아니라 숙련공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두번째 답이었다. 그 대답을 하는 선생의 얼굴에서 첫인상의 온화함은 간데 없었

## 전통을 고집하는 우리 시대의 장인

함성호 시인이 만난 전통미학의 탐구자 신영훈씨

함성호 | 시인 · 스튜디오 'EON' 소장



시인이자 건축가인 함성호씨가 전통건축의 탐구자 신영훈씨(왼쪽)를 만났다.

다. 그만큼 선생의 한옥에 대한 애정은 깊었고, 그대로 선생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 그런 것이 꼭 상쾌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감히 함부로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진정이 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었지만 ‘한옥 문화원’을 강북에 두지 않고 굳이 강남에 정한 건 그런 상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저길 보세요, 하는 눈빛으로 창밖에 남근석처럼 서 있는 강남의 빌딩들을 바라봤다. 그 익숙한 풍경들이 생경하게 보였던 것은 순전히 그에게 전염된 탓이리라.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나는 그의 깊은 고민을 읽었다. 그와 나는 서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 아마 서로의 길에서 가끔은 만날 것이다. 문득, 등근 박같은 그의 몸집에서 한옥의 향기가 난 것 같다.●